

S - 5

## 기록상과 악간관계 기록재 (Record Base & Bite Registration Material)



조혜원 (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)

---

1980	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1986	서울대학교 치의학박사
1993	미국 Tufts 치대 교환교수
2001	미국 UCLA 치대 교환교수
1990~	현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

총의치 기록상은 그 위에 교합제를 부착하여 상악과 하악 사이의 수직, 수평 악간 관계를 기록하고 인공치를 배열하며 시적(try-in)에 이용된다. 동시에 최종 의치상의 과연장 정도를 미리 점검하고, 잔존치조제나 경구개에서의 적합도, 환자의 최종 의치상에 대한 만족도, 타액에 대한 의치상의 영향 등을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. 따라서 기록상은 견고하고 조직에 대한 적합도가 우수해야 하며 구강 내에서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. 기록상으로는 shellac baseplate, 초경성 왁스(extra-hard wax), 각종 아크릴릭 레진(자가중합형, 광중합형, 혹은 열중합형)과 주조된 금속상, 진공형성방법(vacuum forming)으로 제작된

기록상 등이 이용되고 있다. 본 연제는 각 재료를 이용한 기록상의 제작법과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.

악간관계 기록재(bite registration material)는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거나 부착 후 교합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. 교합간 기록은 두 교합제 사이에 알루왁스나 베이스플레이트 왁스, copper wax, 산화아연유지놀 인상재, 인상용 석고, 최근에는 다양한 vinyl polysiloxane 재료 등을 사용하여 인기되고 있다. 각 재료의 특성과 사용법은 정확한 악간관계 기록과 교합기 조절에 중요하며, 시판되고 있는 여러 재료를 기계적, 물리적, 및 임상적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.